

보건계열 대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실^{1*}, 이경화², 차은주³

¹송호대학교 간호학과, ²송호대학교 보건행정과, ³송호대학교 공연영상IT과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Revitalization Plan for Volunteer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Hyeun Sil Kim^{1*}, Kyeong Hwa Lee², Eun Joo Cha³

¹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²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Songho University,

³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 IT, Songh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봉사 필요성 및 활동현황, 활성화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대학생 e-헬스리터러시를 파악하여 향후 대학의 지역사회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S대학교 보건계열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1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57.9%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봉사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4.6%가 봉사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원봉사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1.2%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 자원봉사센터에서의 교육이 35.5%였다.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학교내 모임을 적극 이용이 48.7%였으며, 관리주체는 학과에서 관리가 37.5% 응답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는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원봉사 필요성은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및 e-헬스리터러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원봉사 활동현황은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및 e-헬스리터러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에서의 관리를 통해 효율적 사회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건계열의 전공역량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 스마트헬스케어 기반 사회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research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college students' social service. The subjects were 152 students from S University in Gangwon-do. 57.9% volunteer work was necessary, and 34.6% of them with experience in doing volunteer work responded that they could grow and develop themselves by doing volunteer work. 61.2% of the subjects said that volunteer education was required, and 35.5% of them responded that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t a university volunteer work cent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eed for volunteer work depending on the gender and grad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based critical e-health literacy depending on the major. The need for volunteer work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 revitalization plans and e-health literacy, and the present status of volunteer work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volunteer work revitalization plans and e-health litera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effective social service management in universities is made possible,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meet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is suggested.

Keywords : Majoring in Health Care, Voluntary Activity, Volunteer Awareness, Revitalization, E-Health Literacy

이 논문은 2021년 송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SH-2021-A)

*Corresponding Author : Hyeun Sil Kim(Songho Univ.)

email: hskim@songho.ac.kr

Received June 4, 2021

Revised July 9,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사회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하는 교육과제에 대해 미래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인재상의 하나인 인성적 차원의 교육과제를 강화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다[1]. 대학생의 사회봉사는 우리나라 봉사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대의 사회봉사 참여율은 10대를 제외하고 383,562명으로 가장 많다[2]. 이러한 대학생의 봉사참여는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기관인증평가 기본요건에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의 사회봉사에 대한 의무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관심 또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시설 및 자원 개방, 사회봉사센터 운영 등 학생들의 사회봉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3].

반면, 대학생 1인당 연평균 자원봉사 횟수는 2019년 기준 6.8회이며,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 참여자 수도 1,072명으로 전체 직업군의 5.2%를 차지할 뿐이다[4].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에 비해 대학의 비체계적인 교과과정이나 봉사 관리체계의 분산, 봉사 담당부서의 부재 등 관리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순한 학사업무 정도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3]. 또한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스펙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단기간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결국 이에 맞춘 단순 업무 보조활동에 배치를 하여 단순노력봉사 수준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5]. 더불어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복지영역의 자원봉사 활동 운영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단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6]. 따라서 앞으로의 자원봉사 현장은 감염병에 대한 고려 없이는 논하기 힘들게 되었으며[6],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상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까지 발전되고 있다[7]. 이렇듯 자원봉사의 활동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봉사활동만 운영된다면 자원봉사 활동은 결국 쇠퇴하고 말 것이다[5].

선행 연구에 의하면[3,8] 대학생들은 자원봉사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정보의 부재, 어떻게 참여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혹은 전공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자들은 대학 내 봉사를 주관하는 주부서가 자원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능 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3,8]. 또한 대학생들은 봉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기회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9], 자원봉사 관리과정이 대학생의 자원봉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10],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률이 높을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고[9], 교육경험이 참여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11]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최근 보건의로 분야의 주요 관심사는 일상에서부터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보건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질병의 관리에서 건강관리로 전환하는데 용이한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2]. 스마트헬스케어는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 기기나 병원정보시스템 등에서 확보된 생활습관이나 신체검진, 유전체 정보 등의 의료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개인중심의 건강관리생태계이다[13].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 동향을 살펴보면 헬스케어 1.0에서 공중보건과 헬스케어 2.0, 이후 건강의 관심이 치료중심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헬스케어 3.0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13].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고령화와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 의료비 급증과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한 기대 등이 변화의 동인이다[13]. 이에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건강수명을 증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헬스케어가 새로운 부가가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13].

더욱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시대의 진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17.3%, 2025년 20.3%, 2035년 29.5%로 예상되면서[14], 노인의 건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만성질환 발병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증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15]. 그러나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려면 건강정보를 대중매체로부터 탐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건강정보 이용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15].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건강정보이해능력 중 대중매체 정보의 활용 어려움 정도에 따라 스마트헬스케어 이용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기술 활용 의향정도나 주변인의 조언 이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또한 건강정보 문해력도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지역사회는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으며, 고령노인들은 대표적 정보 취약계층으로 스마트폰 활용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스마트폰 용어나 어려운 사용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17].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고령 노인들의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사회봉사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환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18].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지역사회 중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전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임상실무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임상사결정을 수행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19].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헬스케어리터러시 역량도 중요하다. Hwang & Kang(2019)은 대학생의 e-헬스리터러시가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e-헬스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20].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과제는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강화, 봉사프로그램 강화 등의 확대이며[21],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환경의 도래,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환경에 변화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자원봉사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형태로 스마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의 e-헬스리터러시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자원봉사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의 e-헬스리터러시를 확인하여 향후 대학생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 사회봉사를 활성화하여 향후 대학생과 지역사회 건강욕구에 맞는 사회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들의 자원봉사인식(자원봉사 필요성, 활동현황, 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3. 대상자들의 e-헬스리터러시를 확인한다.
4.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필요성, 활동현황, 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5. 대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인식과 e-헬스리터러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일 대학의 보건계열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program에서 제공하는 multiple regression 표본수 산정방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선정하여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크기 129명을 산출하였다.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총 170부를 배부하여 전수를 회수하였으나 결측치가 많은 18부를 제외하고 15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학년, 전공, 종교, 1일 인터넷 이용시간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2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6문항, 활동현황에 대한 질문 6문항,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묻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3 e-헬스리터러시

e-헬스리터러시는 이상록(2018)이 개발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득한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22]. e-헬스리터러시는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 8문항, 기

능적 e-헬스리터러시 6문항,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 6 문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e-헬스리터러시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 Cronbach α =.90,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 Cronbach α = .90,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 Cronbach α =.92였으며[22],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 Cronbach α =.914,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 Cronbach α =.941,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 Cronbach α =.939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03월 15일~03월 30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S 대학교의 보건계열 중 간호학과와 보건행정과 학생 중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렸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원봉사 필요성 인식, 자원봉사 활동현황,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활성화방안, e-헬스리터러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자원봉사 활동 현황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방안, e-헬스리터러시의 세부 항목들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 종교, 1일 인터넷 이용시간 등 5개 문항이었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여학생이 117명(77.0%)으로 남학생 35명(23.0%)에 비해 많았으며, 학년별로 1학년이 50명

(32.9%), 2학년이 46명(30.3%), 3학년은 32명(21.1%), 4학년은 24명(15.8%)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간호학과 132명(86.8%), 보건행정과 20명(13.2%)이었다. 이는 본교의 특성 상 간호학과의 재학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한 학생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6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가 49명(32.2%), 불교 13명(8.6%), 천주교 13명(8.6%) 순이었다. 1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39명(25.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34명(22.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2

Characteristics		Frequency(%)
Gender	Male	35(23.0)
	Female	117(77.0)
Major (Department)	Nursing Science	132(86.8)
	Health administration	20(13.2)
Grade	First grade	50(32.9)
	Second grade	46(30.3)
	Third grade	32(21.1)
	Fourth grade	24(15.8)
Religion	Christianity	49(32.2)
	Catholicism	13(8.6)
	Buddhism	13(8.6)
	No religion	76(50.0)
	other	1(0.7)
Internet hours per day	less than 1 hour	8(5.3)
	1 ~ 2 hours	35(23.0)
	2 ~ 3 hours	36(23.7)
	3 ~ 5 hours	39(25.7)
	more than 5 hours	34(22.4)
Total		152(100.0)

3.2 자원봉사 인식

3.2.1 자원봉사 필요성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자원봉사 필요성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필요하다 88명(57.9%), 그저그렇다 31명(20.4%)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봉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6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경우가 32명(24.1%)이었다. 반면,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것이지 강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8

Table 2. Awareness of the needs for volunteering

		n=152
Variable		Frequency(%)
Whether college students need volunteer activities	Not necessary at all	3(2.0)
	Not necessary	10(6.6)
	Usually	31(20.4)
	Some necessary	88(57.9)
	Very necessary	20(13.2)
(Student responds that volunteer are necessary (n=133)) Reasons for the need for college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Prevention of social problems, crimes, etc.	3(2.3)
	Support the underprivileged, the main target of volunteering	25(18.8)
	Essential education for volunteers to become responsible citizens	27(20.3)
	Most basic activity that can serve society	32(24.1)
Respond that university students don't need volunteer activities (n=25) Don't need college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Grow and develop yourself through service	46(34.6)
	Volunteering is voluntary and not subject to coercion	18(72.0)
	Volunteering is not conducive to character development	1(4.0)
	Risk of becoming a tool for entrance exams or employment	4(16.0)
	No preparation such as insurance for accidents that occur during the activity	0(0.0)
Need for education related to volunteer activities	No fair and strict evaluation regulation	2(8.0)
	Not necessary at all	5(3.3)
	Not necessary	7(4.6)
	Usually	38(25.0)
	Some necessary	93(61.2)
Effective teaching methods on volunteer activities	Very necessary	9(5.9)
	Volunteer Center	54(35.5)
	Volunteer Use Organization	44(28.9)
	Regular curriculum at school	47(30.9)
	Volunteer Course	5(3.3)
Important virtues for a volunteer	other	2(1.4)
	Responsibility	61(40.1)
	Spirit of service	81(53.3)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5(3.3)
	Sense of justice	4(2.6)
Total	other	1(0.7)
		152(100.0)

명(72.0%), 입시나 취업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16.0%)이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93명(61.2%), 그저 그렇다 31명(20.4%)이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의 교육 54명(35.5%),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47명(30.9%), 자원봉사자 활용기관 44명(28.9%) 순이었다.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봉사정신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1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책임감 61명(40.1%),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5명(3.3%) 순으로 나타났다.

3.2.2 자원봉사 활동 현황

조사대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자원봉사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37명(90.1%),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5명(5.9%)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자원봉사활동 횟수는 1.05±1.51회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로는 동아리 등의 소속단체 조직을 통하여 69명(45.4%), 기관 및 시설지의 홍보 26명(17.1%), 학과나 대학 소개 24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 태도는 적극적이었던 응답이 85명(55.9%), 보통이었다 43명(28.3%)이었다. 자원

봉사활동 후 인식에 변화 유무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5명(42.8%), 변화가 있었다 라는 응답이 64명(42.1%)이었다.

3.2.3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

조사대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학업부족으로 인한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64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및 기회부족 39명(25.7%),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29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Table 3. Volunteer Activities

n=152

	Variable	Frequency(%)
Experience in volunteering	Yes	137(90.1)
	No	15(9.9)
Number of volunteer activities (monthly average)		1.05±1.51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Path	At the recommendation of nearby volunteers	15(9.9)
	At the recommendation of a family member or relative	18(11.8)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club, end, meeting, etc.)	69(45.4)
	By the introduction of the department or university	24(15.8)
	Promotion of institutions and facilities	26(17.1)
Volunteer participation attitude	Very passive	3(2.0)
	Passive	4(2.6)
	Usually	43(28.3)
	Active	85(55.9)
	Very active	17(11.2)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in perception of volunteer activities	No change at all	8(5.3)
	No change	9(5.9)
	Usually	65(42.8)
	Change	64(42.1)
	Many changes	6(3.9)
The reason why the volunteer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were not actively carried out	Lack of information on volunteer activities	29(19.1)
	Lack of education and opportunities for volunteer activities	39(25.7)
	Insufficient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volunteer activities	13(8.6)
	Lack of knowledge or skills for volunteer activities	7(4.6)
	Lack of time due to lack of self-study	64(42.1)
Desirable form of volunteer activity	Conducted regularly at a fixed time	56(36.8)
	Implemented irregularly whenever the person has time	64(40.8)
	Conducted according to the time of volunteer organizations and volunteers	34(22.4)
A great way to revitalize college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Using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volunteer activities	24(15.8)
	Active use of small groups and clubs within the school	74(48.7)
	Volunteer activity credits	33(21.7)
	Mandatory volunteer activities for students	19(12.5)
	other	2(1.3)
Effective school support method to revitalize university volunteer activities	Active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of volunteer activities	51(33.6)
	Financial aid such as funding for volunteer activities	20(13.2)
	Insurance for accidents during volunteer activities	8(5.3)
	Mileage system for volunteer activities	33(21.7)
	Continuous linkage with organizations for volunteering	40(26.3)
Leading management of volunteer activities for college students	School supervision	42(27.6)
	Department supervision	57(37.5)
	Student Association supervision	11(7.2)
	Clubs supervision	24(15.8)
	Individually supervised	18(11.8)
Total		152(100.0)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바람직한 형태는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4명(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학교 내 소모임, 동아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이 74명(48.7%)이었다. 대학 봉사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교의 지원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활발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51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를 위한 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 40명(26.3%),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가 33명(21.7%) 순이었다.

대학생 봉사활동 관리주체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명(37.5%)이 학과주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관 42명(27.6%), 동아리 주관 24명(15.85),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18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서 사회봉사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8명(51.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명(38.9%),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15명(9.9%)이었다.

3.3 조사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조사대상자의 지역사회 스마트헬스케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e-헬스리터러시를 확인한 결과 평균 점수는 3.45 ± 0.56 점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 3.39 ± 0.62 점,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 3.64 ± 0.66 점,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 3.33 ± 0.65 점 이었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의 필요성,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은 성별($t = -2.673, p < .001$)과 학년($F = 5.087, p < .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 = -2.235, p < .05$),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2.861, p < .05$).

Table 4. Necessity, activity status and activation of volunteer activit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Frequency(%)	Need for volunteering		Volunteer activity status		Volunteer activa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Sex	Male	35(23.0)	6.77±1.66	-2.673 (0.008**)	6.80±1.02	-1.297 (0.197)	4.97±2.18	-2.235 (0.027*)
	Female	117(77.0)	7.52±1.41		7.12±1.38		5.93±2.23	
Major	Nursing Science	132(86.8)	7.42±1.53	1.460 (0.146)	7.10±1.35	1.289 (0.200)	5.78±2.18	1.083 (0.280)
	Health administration	20(13.2)	6.90±1.16		6.70±0.97		5.20±2.70	
Grade	First grade	50(32.9)	7.66±1.11	5.087 (0.002**) a>c/c<d	7.16±1.25	2.221 (0.088)	1.95±0.27	2.861 (0.039*) c<d
	Second grade	46(30.3)	7.34±1.35		7.04±1.19		2.03±0.30	
	Third grade	32(21.1)	6.53±1.98		6.59±1.60		2.58±0.45	
	Fourth grade	24(15.8)	7.83±1.37		7.05±1.31		2.25±0.18	
Religion	Christianity	49(32.2)	7.51±1.34	0.435 (0.783)	7.26±.35	0.603 (0.661)	6.16±2.26	0.869 (0.484)
	Catholicism	13(8.6)	7.61±1.04		6.92±0.86		5.38±2.36	
	Buddhism	13(8.6)	7.23±1.30		7.00±0.81		5.37±2.75	
	No religion	76(50.0)	7.22±1.70		6.96±1.42		5.54±2.14	
	other	1(0.7)	8.00±0.00		6.00±0.00	4.00±0.00		
Internet hours per day	Less than 1 hour	8(5.3)	7.12±2.41	0.350 (0.844)	7.25±1.16	0.440 (0.779)	5.75±3.10	0.438 (0.781)
	1 ~ 2 hours	35(23.0)	7.31±1.34		7.20±1.23		6.00±2.65	
	2 ~ 3 hours	36(23.7)	7.52±1.40		7.13±1.33		5.83±2.40	
	3 ~ 5 hours	39(25.7)	7.17±1.62		6.84±1.22		5.33±1.61	
	More than 5 hours	33(22.4)	7.47±1.41		7.00±1.53		5.69±2.12	
Total	152(100.0)	7.35±1.50		7.05±1.31		5.70±2.25		

**<0.01, *<0.05

3.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e-헬스리터러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e-헬스 리터러시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와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의 경우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63, p<.05$).

3.6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활동현황 및 활성화와 e-헬스 리터러시와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자원봉사 필요성, 자원봉사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e-헬스리터러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은 자원봉사의 현황($r=0.433, p<.001$), 자원봉사의 활성화방안($r=0.354,$

$p<.001$),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r=0.195, p<.05$) 및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r=0.160,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원봉사 활동 현황은 자원봉사 활성화방안($r=0.271, p<.001$),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r=0.185, p<.05$) 및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r=0.171,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은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r=0.166, p<.05$)와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r=0.199,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는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r=0.614, p<.001$) 및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r=0.623,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는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r=0.727,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e-health liter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Frequency (%)	Communication e-Health Literacy		Functional e-Health Literacy		Critical e-Health Literac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5(23.0)	3.27±0.73	-1.340 (0.182)	3.46±0.80	-1.776 (0.087)	3.27±0.75	-0.623 (0.534)
	Female	117(77.0)	3.43±0.58		3.69±0.60		3.35±0.60	
Major	Nursing Science	132(86.8)	3.37±0.60	-1.017 (0.311)	3.61±0.64	-1.216 (0.226)	3.29±0.61	-2.063 (0.041*)
	Health administration	20(13.2)	3.53±0.72		3.80±0.75		3.60±0.73	
Grade	First grade	50(32.9)	3.29±0.54	0.651 (0.583)	3.62±0.67	0.134 (0.940)	3.31±0.55	0.131 (0.942)
	Second grade	46(30.3)	3.44±0.57		3.64±0.59		3.36±0.60	
	Third grade	32(21.1)	3.44±0.77		3.60±0.74		3.29±0.77	
	Fourth grade	24(15.8)	3.45±0.67		3.71±0.69		3.38±0.71	
Religion	Christianity	49(32.2)	3.37±0.59	0.909 (0.461)	3.63±0.62	0.244 (0.913)	3.31±0.69	0.462 (0.763)
	Catholicism	13(8.6)	3.69±0.42		3.66±0.41		3.53±0.42	
	Buddhism	13(8.6)	3.30±0.47		3.67±0.54		3.24±0.54	
	No religion	76(50.0)	3.37±0.68		3.64±0.74		3.33±0.65	
	other	1(0.7)	3.75±0.00		3.00±0.00		3.00±0.00	
Internet hours per day	Less than 1 hour	8(5.3)	3.00±0.98	1.448 (0.221)	3.41±1.71	0.238 (0.917)	3.20±1.19	0.484 (0.747)
	1 ~ 2 horus	35(23.0)	3.28±0.68		3.64±0.63		3.26±0.69	
	1 ~ 3 horus	36(23.7)	3.49±0.61		3.65±0.64		3.41±0.58	
	3 ~ 5 horus	39(25.7)	3.45±0.56		3.65±0.55		3.29±0.61	
	More than 5 hours	33(22.4)	3.44±0.50		3.65±0.71		3.40±0.50	
Total	152 (100.0)	3.39±0.62		3.64±0.66		3.33±0.64		

**<0.01, *<0.05

Table 6. Correlation between e-health literacy, volunteer activities, volunteer activation

	Volunteer Activity Status	Volunteer Activation	Communication e-Health Literacy	Functional e-Health Literature	Critical e-Health Literacy
Need for volunteering	0.433 ((0.001**))	0.354 ((0.001**))	0.195 (0.016*)	0.160 (0.049*)	0.134 (0.099)
Volunteer activity status		0.271 (0.001**)	0.104 (0.020)	0.185 (0.023*)	0.171 (0.035*)
Volunteer activation			0.166 (0.042*)	0.157 (0.054)	0.199 (0.014*)
Communication e-Health Literacy				0.614 ((0.001**))	0.623 ((0.001**))
Functional e-Health Literature					0.727 ((0.001**))

**<0.01, *<0.05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사회봉사를 활성화 하여 향후 지역사회 스마트헬스케어 육구에 맞는 효율적 자원봉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사회봉사 참여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식의 바탕을 이룰 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향상시켜 인성교육에 중요한 기틀이 되고 있다[14]. 또한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전인 교육으로서의 역할, 개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가치추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대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자원봉사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57.9%, 그저 그렇다, 20.4%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봉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23,24].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적극적인 태도로 전공의 정체성을 찾고, 타인과의 친밀한 경험을 통해 인성함양 및 자기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22,23]. 따라서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93명(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9,11], 엄운섭 등(2013)은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교육경험이 매개효과가 되었으며, 자원봉사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11].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의 교육이라는 응답이 54명(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라는 응답이 47명(30.9%)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봉사정신(53.3%)이 가장 많았으며, 책임감(40.1%),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5]. 자원봉사 활동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0.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자원봉사 활동 횟수는 1.05±1.51회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다른 자원봉사자 집단에 비해 시간이나 정서적 여유로 현재 가장 많은 참여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나[10] 최근 자원봉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저관심-저참여’로 자원봉사 참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26].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동아리, 종교, 모임 등의 소속단체 조직을 통하여 참여하게 되었다(45.4%)가 가장 많았으며, 기관 및 시설지의 홍보로 참여하게 되었다(17.1%), 학과나 대학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다(15.8%) 순으로 기존 연구결과[27]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동소이 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시 태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다(55.9%)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후 인식에 변화 유무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2.8%), 변화가 있었다(42.1%)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의 사회봉사 지원역량이 강할수록 대학생의 사회봉사에 대한 효과는 높으며, 자원봉사 관리과정이 자원봉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9,10].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은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학업부족으로 인한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및 기회부족(25.7%),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8,28].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바람직한 형태는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40.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학교 내 소모임, 동아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48.7%). 대학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교의 지원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활발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봉사활동의 주도적 관리 주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5%가 학교주관, 27.6%가 학교주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대학차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헬스케어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 e-헬스리터러시는 문해력이 아닌 건강정보의 탐색 및 활용능력에 대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차원에서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와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의 경우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63, p<.05$). 이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Hwang & Kang(2019)은 e-헬스리터러시가 성별과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보건의료계열 대상자가 비보건의료계열 대상자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20].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필요성은 자원봉사현황,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원봉사 활동현황은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 및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Lee 등(2019)은 60-70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정보 문해력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e-헬스리터러시를 측정한 결과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건강 관심도와 건강정보지향과 e-헬스리터러시와 건강행위와는 순상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6].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영역에서 스마트헬스와 관련한 새로운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9,30]. 이에 대학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역량을 살린 지역

사회 중심 스마트헬스 케어 봉사활동 수행을 권장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적 e-헬스리터러시와 기능적 e-헬스리터러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의 경우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63, p<.05$).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는 의료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위험요소들의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건강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보건행정 전공자에서 비판적 e-헬스리터러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3.2%에 불과하여 해석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은 자원봉사의 현황($r=0.433, p<.001$),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r=0.35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방안과 함께 학생 및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봉사참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성교육적 차원의 교육과제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핵심활동이지만 대학에서 관리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 및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등의 비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생의 자원봉사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지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역할을 e-헬스리터러시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57.9%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4.6%가 봉사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61.2%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필요성과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e-헬스리터러시를 분석한 결과 비판적 e-헬스리터러시의 경우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필요성과 활동현황 및 활성화와 e-헬스리터러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대학 사회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언하며, 학생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스마트헬스케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병행 및 전공역량과 봉사, 보람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 H. Lee, A Study on the Education Tasks based on the Talent Capacit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25, no. 2, pp. 143-166, 2019.
DOI:<http://dx.doi.org/10.29318/KER.25.2.6>
- [2] 1365 Volunteer Portal, Volunteer statistics, <http://www.1365.go.kr> (accessed May. 28, 2021)
- [3] C. W. Park, A Study on Strategy to Operate University Social Service Center Fitting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 Communities,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Welfare Studies*, vol. 58, pp. 115-140, 2016.
DOI:<http://dx.doi.org/10.15300/icw.2016.58.3.115>
- [4] Korea Social Welfare Council, 2019 VMS Social Welfare Volunteer Statistical Yearbook. 2020.
- [5] G. H. Gho, Y. H. Lee, B. S. Kim, J. H. Park, R. J. Choi & G. J. Gho, Social Welfare Volunteer Program Development Researc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 [6] J. S. Ha, J. H. Hwang, Y. K. Kim, The Development of Volunteer Activities in Seoul after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23, no. 1, pp. 119-145, 2021.
DOI:<https://doi.org/10.22944/kswa.2021.23.1.005>
- [7] KwangWoonUniversity, Research on online volunteer activation and management plan,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 [8] Ministry of Education, A study on the system establishment plan for revitalizing university community service, Ministry of Education Policy Tasks, 2014, Ministry of Education, 2014.
- [9] J. H. Yoo, M. H. Cho,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College Students' Civic Awareness : Focusing on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Capacity Across Colleg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27, no. 4, pp. 1165-1191, 2015.
- [10] H. K. Oh, W. Kim, Path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Sustainment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Welfare Policy*, vol. 35, pp. 297-327, 2008.
- [11] U. S. Um, C. S. An, J. A. Son, A Study o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ducational Experience Factor Related to the Volunteer Activitie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 17, no. 2, pp. 221-242, 2013.
DOI:<https://doi.org/10.18397/kcgr.2013.17.2.221>
- [12] S. B. Jo, J. I. Lee, Proposal of GUI Guidelines to Improve the Usability of Mobile Healthcare for New Silver Generation, *Smart Media Journal*, Vol. 7, no. 2, pp. 60-69, 2018.
DOI:<http://dx.doi.org/10.30693/SMJ.2018.7.2.60>
- [13] J. K. Choi. Legal Study on the Concept of Smart Healthcare and Service Providers,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 Ethics*, Vol. 14, no. 1, pp. 1-43, 2020.
- [14] Statistics Korea, 2020 Social Indicators in Korea, kostat.go.kr
- [15] G. U. Kim, H. J. Park, Factors Affecting Consumers' Experience of Using Smart Healthcare Focusing on Health Literacy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9, no. 4, pp. 41-53, 2019.
DOI:<http://dx.doi.org/10.5392/JKCA.2019.19.04.041>
- [16] Y. H. Lee, E. J. J, O. J. Yun, Health concern,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e-health literacy and health behavior in aged women : focused on 60-70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4, pp. 39-47, 2019.
DOI:<https://doi.org/10.22156/CS4SMB.2019.9.4.039>
- [17] S. H. Chung, W. T. Kim, A Study on Improvement of Smartphone Use for Seniors -Improvement plans in perspectives of bodily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terms, concepts and technologies- *Design Convergence Study* 45, vol. 13, no. 2, 2014.
UCI : G704-SER000008947.2014.13.2.019
- [20] A. R. Hwang, H. W. Kang, Influence of eHealth Literac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vol. 32, no. 3, 165-174. 2019.
DOI:<https://doi.org/10.15434/kssh.2019.32.3.165>
- [21] K. H. Lee, A Study on the Education Tasks based on the Talent Capacit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25, no. 2, pp. 143-166, 2019.
DOI:<http://dx.doi.org/10.29318/KER.25.2.6>
- [22] S. R. Lee, A study for developing eHealth literacy

scale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pp. 1-137, 2018.

- [23] E. S. Ji, M. S. Son, K. K. Shim, Association between a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6, no. 1, pp. 100-107, 2020.
DOI:<https://doi.org/10.14370/jewnr.2020.26.1.100>
- [24] J. K. Beak, K. H. Seok,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 Volunteers for Sport Event,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7, No.3. pp. 141-151. 2019.
<http://lps3.www.earticle.net.libproxy.dju.ac.kr/Article/A362740>
- [25] C. G. Kim, M. R. Lim, Development directions of voluntarism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2, pp. 57-62, 2011.
DOI:<https://doi.org/10.15207/JKCS.2011.2.2.057>
- [26]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7 Volunteer Promotion 3rd National Basic Plan Establishment Study(2018~2022),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Korea Volunteer Council. 2017.
- [27]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0 Volunteer Activities Survey and Revision of the Basic Act on Volunteer Activitie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Korean volunteer culture. 2020.
- [28] Y. H. Kim, The Research of The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 about Voluntary Activ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2, no. 2, pp. 47-59, 2010.
<http://lps3.www.earticle.net.libproxy.dju.ac.kr/Article/A135868>
- [29] E. J. Lee, C. W. Han, The Impact of the Volunteer Program for the Aged o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toward the Aged and the Aged Welfar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4. 1233~1245. 2009.
- [30] J. H. Kim, H. J. Lee, M. K. Song, Experiences of Using a Smartphone in Korean Elders Living in a Medium-Sized City: Focused on the elders joining in a smartphone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vol. 9, no. 2, pp. 111-145, 2020.
DOI:<https://doi.org/10.22836/kaswpr.2018.9.2.111>

김 현 실(Hyeun-sil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6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8년 2월 ~ 현재 :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노인간호

이 경 화(Kyeong-Hwa Lee)

[정회원]



- 2018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 관리학 석사)
- 2021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과 (보건학 박사 수료 예정)
- 2020년 7월 ~ 현재 : 송호대학교 보건행정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의료정보, 보건학

차 은 주(Eun-Joo Cha)

[정회원]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석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이학박사)
- 2012년 2월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연구교수

• 2017년 9월 ~ 2020년 4월 :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송호대학교 공연영상IT과 조교수

<관심분야>

문화예술교육, 예술치료, 예술사회학